

완도군, 꽃내음 가득 청산도슬로걷기 축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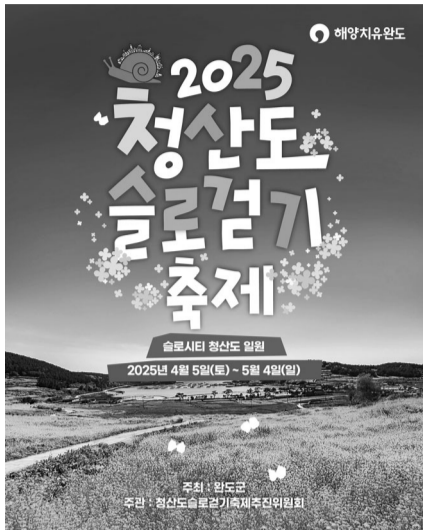
오는 5일부터 5월4일까지 한 달간 낮밤 놀아보세 등 3가지 테마 운영 주민 관광청 활용 프로그램 안내 여객선 반값 혜택 피크닉세트 대어

완도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가 오는 5일부터 5월4일까지 한 달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로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 등 3가지 테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5일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비아, 청산가자'를 시작으로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 슬로길



11코스 중 4개 코스를 걷고 스탬프를 4개 이상 받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랴다'와 청산도를 걸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친환경 키트로 교환해주는 '슬로길 플로깅' 등으로 구성됐다.

'낮밤 놀아보세'는 청산도 구들장 눈에

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대로 한 공연 '청산도 유랑단', 관광객과 주민 DJ가 함께하는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 '범바위 기(氣) 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록하세' 프로그램에는 움직이는 포토존, 청산도 내 숙박 이용 및 특산물 구입 5만원 이상 영수증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선물 줄게, 영수증 다오', 축제를 즐기는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시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 1년 뒤 도착하는 느린 엽서 '청산도 달팽이 엽서' 등이 있다.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인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찍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와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도 마련했다.

이밖에 청산도 주민들의 시선으로 담은 청산도 풍경 사진을 전시하는 '청산도

사진관'과 청산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세트도 대어해 준다.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산도 주민 관광청'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축제 프로그램 및 일정은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풍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섬 여객선 반값,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며 "산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른 섬 청산도에서 밤낮없이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을 빛낸 친환경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바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내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무안군, 1인 10만원

무안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회복지원금을 2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무안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계엄·탄핵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94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전 군민 1인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

지원금은 구제역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일부터 지급되며 4일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아파트를 방문해 배부하고 이후 오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남악·오룡 주민은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20일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약 9만3700명의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무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을 권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민생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께서 이달 말까지 빠짐없이 수령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신안군,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신안군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이며 통제 기간은 봄철인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가을철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신안군에 따르면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 두렁 소각 60건(13%) 등 순이다.

이처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 허가를 받아 입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양파떡' 전수 대상자 모집 7월 중 기술 전수 교육

무안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과 양파를 활용한 '무안양파떡' 개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무안양파떡 개발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떡 제조·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떡방앗간 등)를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진행, 교육은 오는 7월께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리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양파떡 제조 집중 교육을 통해 자체 생산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061-450-4052)으로 문의 후 이메일(ush3260@korea.kr), 팩스(061-450-5136), 방문 접수로 진행할 수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가거도 해상서 어선·상선 충돌 목포해양구조 활동 펼쳐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7km 해상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목포해양경찰이 구조 활동을 펼쳤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17분께 어선 A호(80톤, 부안선적, 근해통발)와 화물선 B호(3378톤, 싱가포르 선적, 석유제품운반선)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어선 A호에는 12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승선원 중 3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요추골절이 의심돼 육상으로 이송됐다. A호는 선수와 선미에 약 50cm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돌 화물선 B호의 경우 인적 피해는 없으나 우현 선수에 파공으로 인한 침수가 확인됐다.

특히 사고 당시 B호에는 아스팔트 타르 약 3000톤이 적재돼 있어 해경은 서해 특수구조대를 현장에 즉파, 선체안전 확보 및 해양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목포해양경은 사고 당시 선박들의 항적과 충돌흔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달 28일과 29일 신안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3회 신안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파크골프 등 7개 종목에 15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제3회 신안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성료

신안군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신안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신안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축구를 비롯한 7개 종목에 1500여명이 참가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과 도사로 이루어진 읍면 간 교류의 장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안군 체육회에는 32개 종목 30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4월에 개최되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1개 종목 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씨월드고속훼리(주),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1호 선정

사회적 책임 지속 노력

국내 제주기점 항로 1위선사 씨월드고속훼리(주)(대표 이종훈)가 '나눔명문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목포시 소재 기업 중 올해 첫번째로 (2025년 목포1호)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됐다.

31일 씨월드고속훼리(주)에 따르면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목포봉사대회의실에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열었다.

가입식을 통해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 받았으며 이를 통해 '나눔명문기업'으로



서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다.

이종훈 대표는 "나눔 명문기업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첫걸음이 더욱 값지고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씨월드고속훼리(주)의 활동이 다

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주)는 매년 목포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쾌적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함으로써 제주발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밖에 혈액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가치 나눔 프로젝트, 보호시설 아동 초청 제주도 사랑투어,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며 나눔명문기업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